탐방기

밴쿠버 도시농업 현장방문과 제34차 미국 ACGA[1] 컨퍼런스 스케치

이강오 사무처장 kangolee@naver.com
서울그린트러스트

필자는 지난 8월 초, 밴쿠버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시농업 사례지를 방문하고 ACGA 컨퍼런스에서 서울의 도시농업을 홍보하고자 서울 세션을 준비하였다.도시농업 하면 떠오르는 도시인 밴쿠버는 시애틀에서 2시간 정도 거리로 컨퍼런스 3일 전에 먼저 방문하였다. 밴쿠버에 도시농업과 관련된 기존 대표지역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였기에, 이번 탐방에서는 밴쿠버시 먹거리정책위원회(Food Policy Committee)에서 발간한 밴쿠버 먹거리전략계획(Vancouver Food Strategy) 자료에 나온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참고하여 아직까지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은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을 둘러보았다. 지면이 충분하지 않아, 우리가 방문한 벤쿠버의 도시농업관련 사이트를 간단하게만 설명을 남겨둔다.

가. 솔푸드 폴스 크릭 농장

밴쿠버 도심지의 빈 땅을 스트릿 팜(street farm)으로 바꾸는 사회적 기업 솔푸드가 운영하는 곳이다. 솔푸드(SOLEfood)는 소외계층에게 일자리와 농업기술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부와 소비자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우리가 방문한 폴스 크릭 농장(false creek farm)은 솔푸드가 운영하는 4개 농장 중 가장 큰 규모의 농장으로, 면적이 8,100㎡(2acre)에 달하며 2010년 동계올림

그림1 올림픽 스타디움 주차장에 펼쳐진 매우 인상적인 솔푸드 폴스 크릭 농장

픽이 개최되었던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돔 경기장 주차장 부지의 일부이다. 콘코드 패시픽(Concorde Pacific)이라는 부동산개발회사로부터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주에게는 세금 혜택이 주어진다.[2]

지게차로 이동 가능한 목재모듈시스템과 체계화된 관수시스템으로 임시임대지의 생산효율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수확물은 고급레스토랑에 판매되거나, 커뮤니티 지원 농업(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이하 CSA) 프로그램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연계하여 준다.

나. 코튼우드 커뮤니티가든과 스트라스코나 커뮤니티가든

코튼우드 커뮤니티가든(CottonWood Community Garden)은 스트라스코나 공원 남쪽면에 위치해 있다. 1991년 쓰레기 더미로 방치된 공간을 지역 주민들이 커뮤니티가든으로 정비한 곳으로 면적은 약 16,200㎡(4acre)이며, 140개의 텃밭(plot)과 어린이 교육정원, 과수원, 8종의 대숲이 있다. 다양한 관목과 초화류가 식재되어 있고, 어린이, 노인, 이민자, 원주민, 장애인들에게 오픈 되어있다. 현재 도시계획상 시내중심부 통행 도로 확장으로 스트라스코나 커뮤니티가든과 함께 축소될 위기에 처하자 개발반대 서명운동을 받고 있었다. 도시농업이 발달한 밴쿠버에서도 토지의 지속가능성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니, 도시농업지역은 여기서도 개발 유보지인가 하는 마음에 씁쓸함을 금할 수 없었다.

스트라스코나 커뮤니티가든(Strathcona Community Garden)은 코튼우드 커뮤니티가든과 마찬가지로 스트라스코나 공원 부지 내에 위치해있다. 밴쿠버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도 꽤 큰 커뮤니

그림2 쉼터와 텃밭이 어우러진 코튼우드 커뮤니티가든의 디자인

그림3 과수원이 아름다운 스트라스코나 커뮤니티가든

티가든으로, 1985년에 역시 쓰레기더미로 방치되어 있던 시유지를 지역주민이 커뮤니티가든으로 만든 곳이다. 면적은 약 13,500㎡(3.34acre)에 달하고, 2005년 밴쿠버 공원위원회가 비영리단체인 '스트라스코나 커뮤니티 가드너 협회'에게 공동체에 기반한 생태적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25년간 공식 임대하게 되었다. 이 커뮤니티가든은 북미의 대부분 커뮤니티가든이 그렇듯이 참여자들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밴쿠버시의 커뮤니티가든 코디네이터가 방치된 텃밭(plot)을 점검한다. 200개의 plot(1.5×4.5m)이 있으며, 에코 파빌리온, 그린하우스, 벌통, 야생동물서식지(토착수종으로 이루어진 숲과 초지), 어린이 놀이터가 있으며 과수원이 매우 인상적인 곳이다.

1 ACGA(American Community Association the 34th Annual Conference): 북미를 대표하는 도시농업 단체로서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고 있다. 비영리단체로서 도시농업과 도시녹화를 통해 공동체를 회복하는 전문가, 자원봉사자, 풀뿌리 단체로 구성되어 미국, 캐나다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2 밴쿠버는 도시농업과 커뮤니티가든에 대한 높은 수요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간의 개발예정지를 커뮤니티가든으로 조성할 경우 토지세의 2/3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시애틀 신문에 따르면 이 제도로 한 부동산 소유주는 연간 1억원 정도의 세금을 감면받고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최근에는 세수가 줄어드는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한다.

다. 브리타니아 스쿨 도시 정원 데이빗 톰슨 중학교 정원

브리타니아 스쿨 도시 정원(Britannia School Urban Garden)은 브리타니아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은 약 800㎡로 소규모 학교 텃밭이다. 인근 유치원, 초 · 중 · 고교 학생들과 커뮤니티 센터와 연결된 교육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 운영은 그랑뷰 우드랜드 푸드 커넥션(Grandview Woodland Food Connection)이라는 풀뿌리단체에서 맡고 있으며, 2004년부터 모두를 위한 안전한 먹거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식품안전에 대한 교육과 정보공유를 담당하고, 지역사회의 참여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며 소외된 이웃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사방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한다. 밴쿠버시를 포함한 다양한 매칭펀드로 운영하는데 밴쿠버시 식량전략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모델사업이다. 이 지역은 서울의 성미산마을과 비교될 만큼 밴쿠버에서 마을공동체 운동이 가장 활발한 곳으로, 커뮤니티센터에 2개의 학교와 운동장, 공원, 어린이와 노인과 가족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공간이 한 곳에 모여 있는 이름 그대로 '커뮤니티센터'이다. 마을에 관심있는 전문가나 민간인들이 좋은 사례로 삼을만한 장소이다.

데이빗 톰슨 중학교 정원(David Thomson Secondary School Garden)은 2013년 새롭게 조성된 학교 텃밭으로 프레쉬 루츠 도시농장(Fresh Roots Urban Farm)과 밴쿠버 학교위원회가 함께 조성하였다. 학교수업, 방과후 교실, 방학프로그램과 연계된 실습장이자 지역의 도시농부들의 수익사업이 가능하고, 학교와 주변 지역과의 먹거리 생산과 소비 연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수확물은 스쿨야드 하비스트 박스 프로그램(Schoolyard Harvest Box Program)을 통해 학교 급식과 지역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다. 텃밭은 깔끔하게 잘 정돈되어 있고, 검은색 흙이 매우 인상적이다. 유기질이 풍부한 이 흙은 공원에서 퇴비화 과정을 거쳐 공급되었다고 한다.

그림4 앙증맞은 학교텃밭. 브라타니아 초등학교 상자텃밭

라. 밴쿠버 시청의 옥상 양봉장과 커뮤니티가든

가든밴쿠버시의 옥상 양봉장과 커뮤니티가든(Rooftop Beehive and Community Garden of Vancouver City Hall)은 서울시청사 옥상 양봉장 벤치마킹 대상지이기도 하다. 기대와는 달리 2개의 벌통만이 있어서 실망스러웠으나, 이 벌통을 관리하는 학교 교사이자 양봉전문가 자원활동가인 놈 캐틀러(Norm Kaethler)와 시청공무원인 테라 캐틀러(Terra Kaethler) 씨와의 대화는 매우 유익하였다. 도시양봉은 밴쿠버 먹거리 정책에 따른 도시농업 전략의 일부라고 한다. 시 조례를 통해 안전하게 도시양봉을 장려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공하고 있으며, 2010년 봄 밴쿠버 시청 옥상에 2개의 벌통을 설치하였다고 한다. 놈 캐틀러씨는 환경교육에 관심이 많은 초등교사로 꿀벌지키미와 가드닝 클럽(Beekeeper & Gardening Club) 회원이며 취미로 양봉을 시작했다고 한다. 시청옥상 양봉은 1주일에 한번씩 2명이 함께 벌을 돌보고 있다. 밴쿠버에서 꿀벌을 치는 양봉사들은 매년 봄 블랙베리 수분에 큰 역할을 하는 벌통관리를 통해 수입을 창출한다고 한다. 옥상의 양봉장은 실망스러웠지만, 밴쿠버시청의 커뮤니티가든은 매우 아름답고 인상적이었다.

그림5 밴쿠버시청 옥상에서 바라본 시청마당 커뮤니티가든. 잔디를 걷어내고 텃밭조성

마. 밴쿠버 퇴비 정원과 도시 농부인 마이클 레벤스톤

밴쿠버의 도시농업하면 반드시 빠지지 않는 단체가 '시티 파머(City Farmer)'이다. 작지만 강력한 힘을 가진 밴쿠버 퇴비정원(Vancouver Compost Demonstration Garden)은 시티 파머가 운영하고 있는 퇴비교육을 위한 공간이다. 1982년도에 조성된 마이클 레벤스톤(Michael Levenston)씨가 시작한 곳으로 1,572㎡ 면적에 지렁이분변토, 낙엽퇴비장, 음식물 퇴비장 등 다양한 종류의 퇴비장이 있고, 생태화장실 자연재료를 이용한 쉼터, 유기농정원, 빗물정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원의 수확물 일부는 5월에서 10월까지 매주 지역단체에 기부하고 있으며, 요일별로 담당가드너가 정원관리와 교육을 진행한다. 퇴비정원의 방문자 안내와 매년 4,000건의 전화상담, 80여건 언론 홍보, 6,500건의 행사가 이들의 실적이다. 최근에는 도시농부정보센터(www.cityfarmer.info)를 운영하여 전 세계 150여 개국의 도시농부들의 정보를 교류하고 있다. 마이클 레벤스톤씨와 1시간에 걸친 대화를 가질 수 있었는데, 참으로 자유분방한 사람이었다. 대학 때는 언론학을 전공했지만, 시민운동에 관심이 많아 처음에는 에너지 운동을 시작했고, 농사를 지을 생각도 하였으나 시골에서 전업농은 너무 힘들어 도시농부를 하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지금은 밴쿠버시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퇴비 교육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스스로 자신의 사무실과 정원을 밴쿠버시의 도시농부라 명명하고, 자신을 장관으로 임명하였다. 전세계 도시농부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 하나일 것이다. 하지만 얼마 전 돌아가신 아버지가 '언제 너는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질거냐'라고 했다고 한다. 밴쿠버 도시농업의 대부라 할만하다. 한국에는 아마 텃밭보급소의 안철환 소장이 그렇지 않을까 싶다.

그림6 씨티파머의 마이클 레벤스톤씨의 퇴비함 설명

바. 반두센 식물원과 부차드 가든

반두센 식물원(VanDusen Botanical Garden)은 면적은 약 222,577㎡(약 6만6천 평)인 밴쿠버의 가장 대표적인 공공정원이다. 원래 캐나다 철도부지로 1911년~1960년까지 골프장으로 쓰이다가 분리매각 개발위기에 놓이자 많은 시민들의 지지와 밴쿠버 시 기금, 반두센의 자선기금으로 철도회사로부터 식물원 부지를 매입하여 1975년 시민들에게 개방되었다.

밴쿠버에서 가장 유명한 정원으로는 부차드 가든(Butchart Garden)으로 반두센과 달리 사설정원이다. 부차드가든은 1904년 제니 부차드(Jennie Butchart) 부인이 석회암 채석장 부지를 아름답게 가꾸면서 조성하였으며, 규모의 반두센의 1/3 정도되며 부차드 가족의 소유와 관리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가 이 곳을 방문한 이유는 호기심이기도 하였

그림7 아름다운 부차드 가든. 밴쿠버 시민들의 가드닝 영감을 느끼는 곳

지만, 두 정원을 보고나니 왜 밴쿠버 시민들이 커뮤니티가든을 그렇게 아름답게 잘 관리하는지 이해가 갔다. 공공정원의 훌륭한 디자인은 시민들에게 텃밭과 정원에 대한 상상력을 주고, 공공정원의 교육 프로그램은 시민들의 가드닝 역량을 자연스럽게 키워주고 있었다.

사. 제34회 ACGA 컨퍼런스

ACGA 컨퍼런스는 미국 커뮤니티가든 협회가 주최하는 컨퍼런스로 매년 미국, 캐나다 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 도시농업, 공동체운동, 도시공원 분야를 망라하여 수백명의 전문가와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대회이다. ACGA는 필자가 오랫동안 관찰해온 도시농업 관련단체로 특히 매년 개최되는 총회의 주제가 지금 우리가 서울에서 고민하는 내용에 해법을 주고 있는 것 같았다. 특히 2012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33회 대회는 티켓을 살까 말까 망설일 정도였다. 영국에 가드닝과 도시농업을 위한 단체로 RHS(Royal Horticulture Society)가 있다면, 미국에는 ACGA가 있다고 하면 좀 과장될지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방문해보고 싶은 회의에 드디어 기회가 왔다.

컨퍼런스의 제목은 '공동체를 키우고, 건강을 수확하자 : 공동체텃밭에서 도시농장까지(Cultivating Community, Harvesting Health: Community Gardens to Urban Farms)'이며, 컨퍼런스 일정은 워크숍, 발표, 기조강연, 영화제, 현장방문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8월8일부터 11일까지 크게 5가지 주제(Make it Grow, Make it Happen, Community Gardening & Society, Sound Mind & Body, The Food System)로 진행되었다(구체적 주제별 의제 내용은 **표1**참조).

본 회의를 크게 3개의 의제로 간단하게 정리하여 미국 도시농업의 흐름을 읽어보고자 한다.

첫번째 의제 건강 도시식량혁명(Urban Food Revolution)의 저자 피터 랜더(Peter Lander)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미국의 농부들은 지속적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대형마트의 식료품은 저렴한 이유가 외부비용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외부비용은 핵심은 오염된 도시의 먹거리들이 소비자들의 비만, 아토피 등을 유발하며 엄청난 의료비용이 발생한다는데 있다. 미국 시민의 50% 이상이 비만이고, 이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GDP의 20~30%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도시농업을 통해 시민들이 건강한 먹거리를 자각하고, 신선한 채소를 자가 재배하거나 로컬푸드 운동과 도농교류 프로그램인 CSA(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두번째 의제 공동체 시애틀의 도시농업은 농업활동보다 공동체활동을 제1의 가치로 두고 있다. 시애틀은 P-패치라고 하는 공동체텃밭으로 유명하다. 자세한 소개는 '특집2 시애틀 공동체 텃밭'에서 해두었다. 북미의 커뮤니티가든은 집안에 텃밭과 정원을 가꿀 수 있는 뜰이 없는 도심지역이나, 이민자나 저소득층 지역에 활성화되어 있다. 이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함께 농사와 다양한 소셜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웃과 친숙해지고,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일원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나아가 도시농업이 경작자들의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모두를 위한 일임을 알리기 위해 푸드뱅크와 연계하는 등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표1 미국커뮤니티가든협회 34차 총회 프로그램

세션제목	분야	발표주제 및 특징
Make it Grow	원예, 파머컬쳐, 도시 가축 등	• 주제 : 식물, 병충해, 곤충, 토양만들기와 관리, 경관디자인의 원칙, 지속가능성, 도시 생물다양성, 도시 가축관리 등 • 특징 : 양봉은 이미 보편화 되어가고 있고, 이 뿐만 아니라 박쥐, 곤충 등에 대해서도 도시의 생물다양성 측면 강조. 유실수 재배 논의
Make it Happen	정책, 실행 및 운영	• 주제 : 커뮤니티가든과 도시농업을 지원하는 정책과 제도, 커뮤니티가든과 도시농업 프로그램의 역사, 디자인, 실행, 운영 등 • 특징 : 도시의 토지이용정책과 부처간 & 영역간 파트너십. 도시에서 유실수 재배에 대한 법적인 문제. 마켓가든과 같은 생산적 시도. 도시농업의 커뮤니케이션의 핵심 도구로 '건강'을 제시
Community Gardening & Society	문화, 사회, 식량정의	• 주제 : 식량의 사회문화적 의미, 다문화 교류, 식량 허브, 보존해야할 작물과 기술, 건강한 식량에 대한 접근권, 녹색 공간과 건강한 환경, 식량안전, 청소년 텃밭, 공공임대주택의 텃밭, 나눔텃밭, 공동체 육성, 환경적 안전성과 질적 향상 등
Sound Mind & Body	건강, 보전, 테라피	• 주제 : 도시농업과 커뮤니티가든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혜택, 병 예방, 생애주기 가드닝, 새 테라피와 놀이 텃밭, 텃밭 교육 등
The Food System	텃밭에서 식탁까지, 퇴비에서 텃밭까지	• 주제 : 로컬푸드의 생산과 소비를 지원하는, 텃밭에서 식탁/레스토랑/카페테리아 프로그램, 협동조합, CSAs, 농부시장, 지역 먹거리 시장 등

자료 : ACGA 홈페이지. 2013 ACGA 컨퍼런스 프로그램

세번째 의제 공동체텃밭에서 도시농장까지 시애틀은 북미에서도 공동체텃밭 분야에서 가장 앞선 도시이지만, 최근에는 공동체텃밭 뿐만 아니라 상업형텃밭(market garden)이 3군데 운영되고 있다. 밴쿠버에서는 솔푸드(SOLEfood)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에서 도심 유휴지에 꽤 규모가 큰 상업형텃밭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가 방문한 한 학교텃밭은 학교내에 텃밭이 있지 않고, 시애틀에서 차와 페리로

그림8 2013년8월9일. 개회식 특강. 300석 강의실을 가득 메운 미국의 도시농부들. Hello. I am Community Gardner

1시간 거리에 떨어진 섬에 위치해 있었다. 7ha에 달하는 이 농장은 2명의 선생이 배치되어 학생들의 야외체험학습의 장으로 활용되면 동시에 농장에서 생산된 농작물로 일정한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